

2024

9.13

CERIK 시장동향

2024년 08월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

○ 매매시장	2
○ 임대차시장	5
○ 공급	6
○ 수요	9
○ 금융	10
○ 부동산산업	11
○ 통계요약표	12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당월 부동산시장 현황 요약 및 추이 분석

- 4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월간 0.01% 상승해 2023년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해
- 4월 전국 집합건물 매매 거래 중 생애최초 구입 비율은 44.6%... 정책 모기지 시행이 영향 준 듯
- 주택 인허가, 공공·민간·수도권·비수도권 등 분야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전국 연누적 대비 22.8% 감소)

◎ **(종합)**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 짙어져...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78.2%가 정책 대출

◎ **(매매)** 7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0.21% 상승하였지만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0.03% 하락

- 수도권은 4월 상승세를 처음 나타낸 이후 상승세가 크게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임.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MoM 0.36% 상승해 수도권 전체 상승률 견인
- 상승률이 둔화됐던 지난 2021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수도권 아파트 시장 상황을 분석해보면, 7월까지 누적 하락률은 5.11%로 전체적으로는 직전 고점에 못 미친 상황이나, 전저점이었던 2023년 5월에 비하면 1.67%p 상승하였음.
- 지방의 경우 5대광역시가 0.04% 하락하였지만, 세종을 포함한 8개도 지역에서 0.01% 상승해 총합 0.03% 하락함.

◎ **(거래)** 주택 매매거래량은 가격 변동률과 유사하게 수도권에서 증가했지만 지방에서 감소

- 서울의 매매거래량 증가폭이 MoM 7.6%에 달해 가장 컸으며, 2024년 초 거래량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임.
- 수도권 중 인천 거래량은 전월 대비 29호(0.07%) 감소해 다른 두 지역과 상이한 흐름을 나타냄.
- 지방광역시와 8개도 전 지역을 포함해 세종(11.0%)과 충남(0.8%)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거래량이 감소함.

◎ **(대출행태)** 상반기 동안 증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액 중 78.2%인 20.8조 원이 정책 대출로 집계돼

- 만약 2025년에도 정책 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이어진다면 시장에는 가격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임대차)** 6월 들어 전세가 상승이 둔화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 달 들어 수도권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7월 전국 전세가 상승폭은 연중 최고치 재경신(0.24%)

- 월세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짐. 수도권 아파트 월세는 전월 대비 0.29%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지만(0.08%p), 지방 아파트 월세는 전월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됨(0.04%p)

매매시장

1_수도권(서울·인천·경기)

- 7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 0.21% 상승해 전월 대비 상승폭이 더욱 커지는 추세
- 6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서울과 경기도 각각 MoM 7.6%, 0.3% 증가한 데 비해 인천 거래량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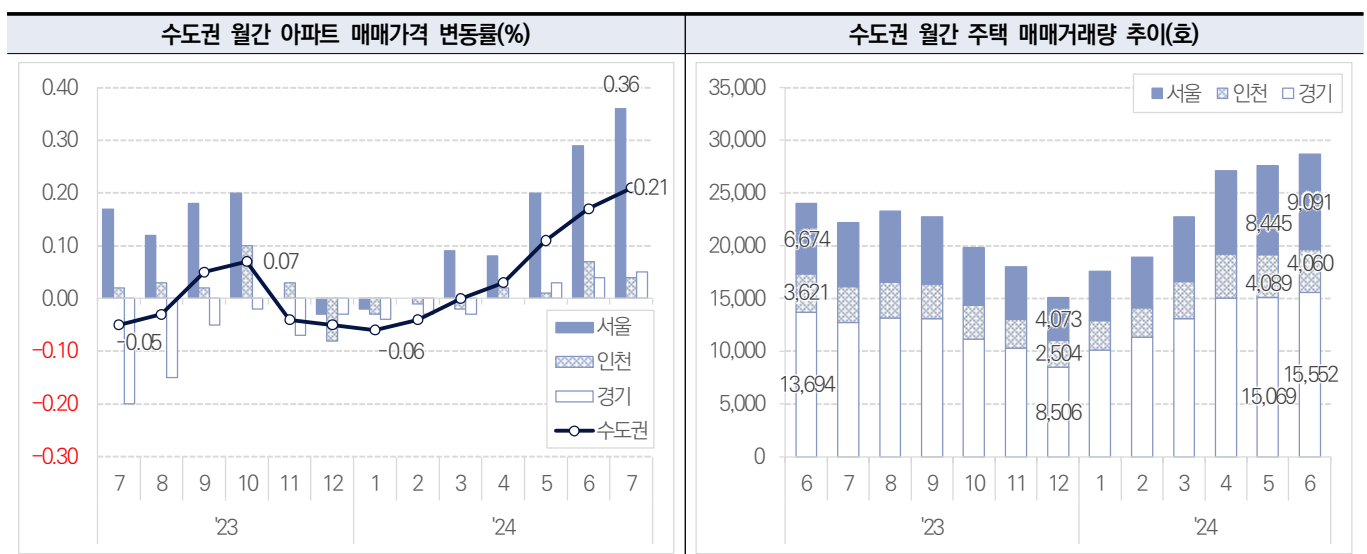
◎ (가격) 7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 0.21% 상승하며 MoM 상승폭 지속해서 키우는 모양새

- 수도권 아파트 가격 전월 대비 상승률이 0.2%를 넘긴 사례는 지난 2021년 12월(0.27%) 이후 31개월 만에 최초임.
- 특히 서울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6%에 달해 수도권 전체 상승률을 제고하는 역할을 함. 2021년 12월 이후 31개월 동안 서울의 누적 하락률은 5.11%이며 직전 저점이었던 2023년 5월에 비하면 1.67% 상승한 것임.
- 지난달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컸던 인천 지역은 상승폭이 다소 제한되면서 0.04% 상승함.

◎ (거래) 6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2만 8,703호로 집계됐고 서울의 거래량 증가세 커

- 6월 서울 거래량은 9,091호로 집계돼 전월 대비 7.6% 증가했고 경기 지역은 전월 대비 0.3% 증가
- 2024년 초 서울 거래량이 4,699호였던 것과 비교하면, 7월 월간 거래량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임.
- 서울과 경기 거래량이 증가한 데 비해 인천 거래량은 전월 대비 29호(0.07%) 감소함.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



※ 주 : 매매가격 변동률은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음.

※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114

매매시장

2_지방(지방광역시·8개 도)

- 7월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8개도에서 0.01%의 소폭 상승을 기록하였지만 5대광역시는 여전히 하락세
- 6월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 2.7만 호로 집계돼 수도권 동월 거래량 2.9만 호에 비해 2천호 가까이 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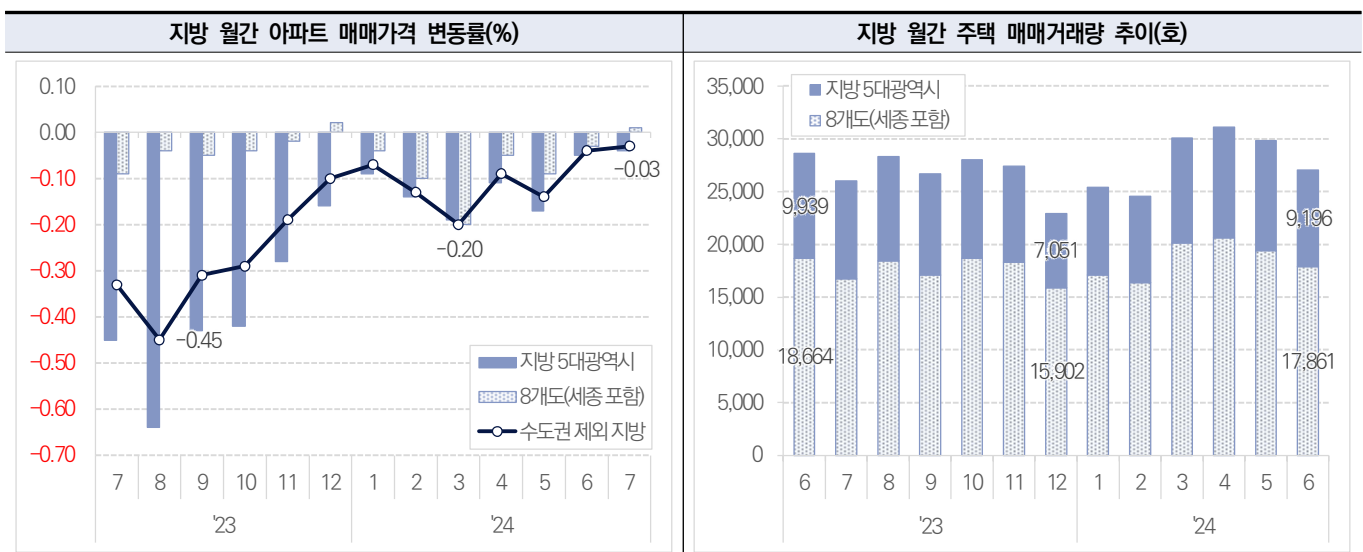
◎ (가격) 7월 지방 아파트 매매가, 5대광역시 0.04% 하락한 데 반해 8개도(세종 포함) 0.01% 상승

- 지방 5대광역시의 하락은 지난 2022년 2월 이후 30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누적 하락폭은 10%를 소폭 초과하는 수준임.
- 반면 8개도는 2022년 5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2023년 12월 반짝 상승(0.02%)한 데 이어 7월 들어서도 0.01% 상승하는 등 5대광역시에 비해 등락폭이 적은 편임.
- 이는 지난 가격 상승기 5대 광역시 재건축 기대 상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던 것에 기인함.

◎ (거래) 6월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2만 7,057호로 집계돼 전월에 비해 9.3% 감소

- 지방광역시 주택 매매거래량은 MoM 12.0% 감소 / 5개 지방광역시 전역에서 전월 대비 감소
* 부산 -15.1% / 대구 -10.9% / 광주 -18.6% / 대전 -4.7% / 울산 -6.3%
- 8개도 중에서는 세종시, 충청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 / 전월에 비해 거래량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전북(-15.4%)
* 세종 11.0% / 충남 0.8%

지방 주택매매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



※ 주 : 매매가격 변동률의 경우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음.
 ※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114

매매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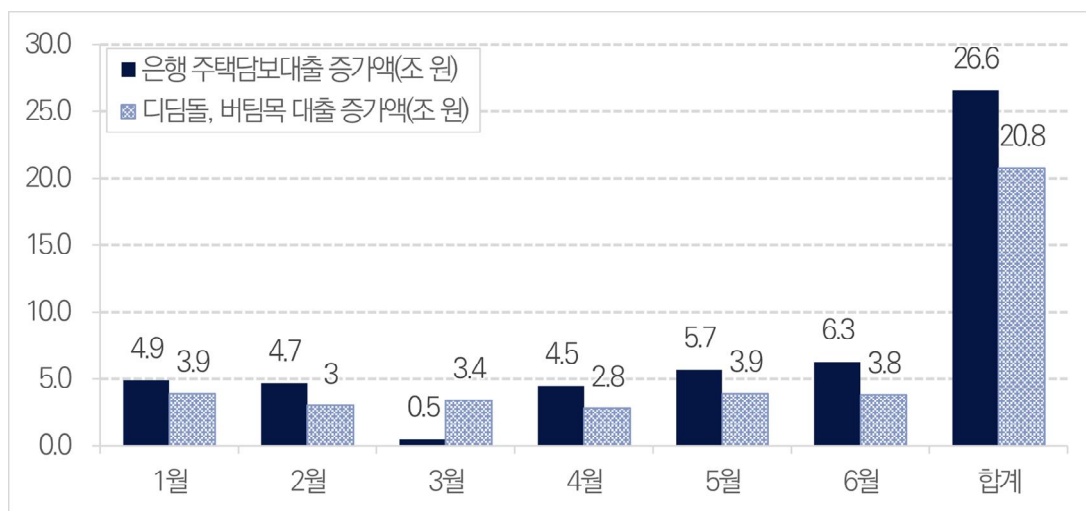
3_거래속성

- 상반기 실행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78.2%는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
- 주택시장으로 유입된 유동성의 상당수가 정책 대출에 기인한 만큼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의 요인 중 하나로 정책대출 지목 가능

- ◎ (대출행태) 상반기 증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6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된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실행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등 정부 정책성 대출은 20.8조 원(78.2%)으로 집계
- 주택구입대출을 하지 않으면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현재 주택 가격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정책 대출을 꼽을 수 있음.
 - 정책성 대출은 현재 최저 1%대 초반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수 있으며 시장 금리 항방과 관련이 적어 시장 금리 움직임과 동떨어진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특징임.
 - 즉, 시장에서 금리 4%대 대출을 받더라도 1% 내지 2%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음.
 -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 중 주택도시기금 관련 지출 예산이 2024년 대비 5%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나, (가칭)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는 등 신생아 관련 지원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수준의 정책 대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견할 수 있음.
 - 만약 2025년에도 정책 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이어진다면 시장에는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함.

주택매매시장 거래 속성

은행 주택담보대출 및 디딤돌·버팀목대출 증가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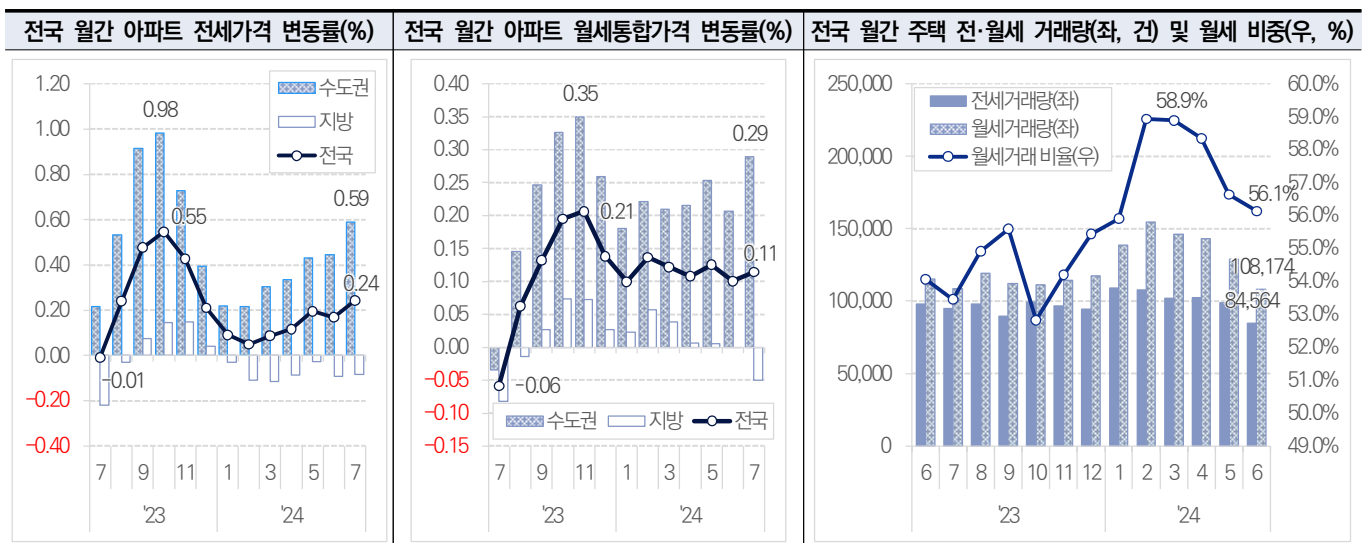
※ 자료 : 데일리안(2024.7.12.), 법원 등기정보광장

임대차시장

- 7월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 0.24%로 전월에 비해 더 확대됐고, 월세가 상승률도 0.11%로 상승폭을 재차 키워
- 6월 전월세거래량은 19.3만 호로,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20만 호 이하로 하락함.

- ◎ **(전세)** 6월 전국 전세가격의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는 듯했으나 7월에는 수도권 전세가가 지난달에 비해 더 크게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재경신한 0.24%를 기록함.
 - 수도권은 상승폭을 늘리고(0.44% → 0.59%), 지방은 하락폭을 줄임(-0.09% → -0.08%).
- ◎ **(월세)** 7월 전국 아파트 월세통합가격¹⁾은 0.11% 상승을 기록해 전월 대비 0.01%p 증가폭을 키웠으나 전반적으로는 1월 이후 증가폭이 일정한 수준이라 해석하는 것이 옳음.
 - 전세와 달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는 추세임. 수도권 아파트 월세는 MoM 0.29% 올라 전월 대비 상승폭이 0.08%p 확대된 반면 지방 아파트 월세는 MoM 0.05% 내려 전월에 비해 오히려 하락 폭이 0.04%p 확대됨.
- ◎ **(거래량)** 6월 전·월세 거래량은 MoM 14.4%, YoY 1.37% 감소한 19만 2,738호를 기록
 - 전국 전세거래량은 8.5만 호로 2021년 6월 전·월세 거래량이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적음.
 - 전국 월세거래량은 10.8만 호로 집계돼 2021년 11월 이후 가장 적었던 달로 기록됨.

전국 주택임대차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



※ 자료 :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1) '월세통합가격(지수)'이란 월세, 준월세, 준전세 지수를 각각의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지수임. 이하 동일함.

공급

1_인허가

- 국토교통부의 공급 통계 변동사항으로 인해 2023년과 2024년 통계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2024년 상반기 누적 인허가 물량 중 전년 대비 증가한 부문은 8개도의 공공부문(182.2% ↑)임.

◎ (주택 전체) 부문별·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상반기 인허가 중 증가한 부문은 8개도 공공부문이 유일

- 지난해 상반기 596호 인허가됐던 반면 2024년 상반기에는 1,682호 인허가된 것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에 비해 182.2% 증가

◎ (APT) 7월 아파트 인허가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년 누적 대비 감소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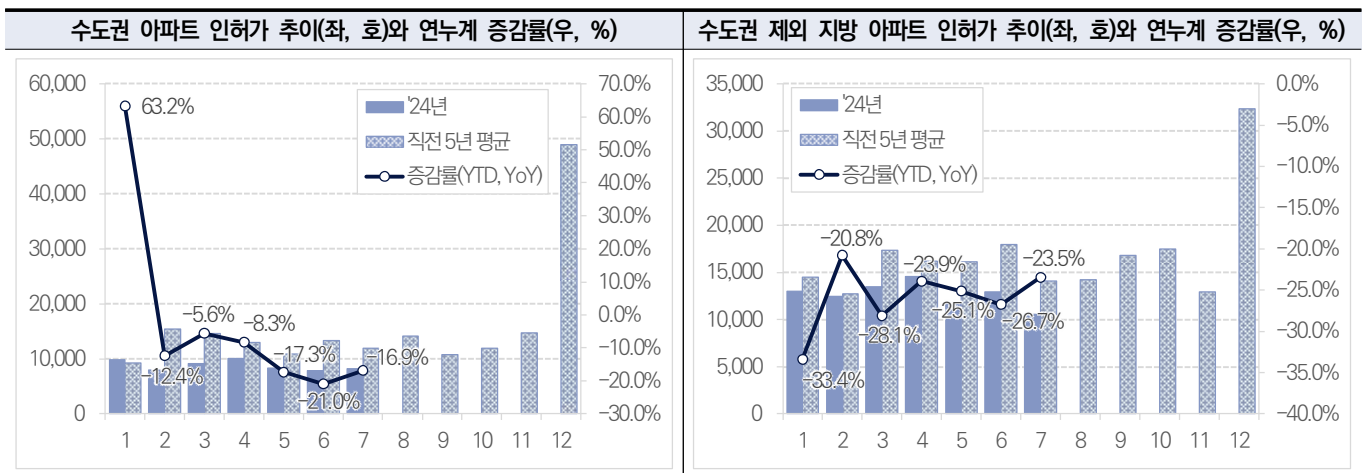
- 수도권 인허가는 전년 누적 대비 16.9% 감소했고(전월 21.0% 감소) 지방 인허가는 전년 누적 대비 23.5% 감소(전월 26.7% 감소)함.

주택 인허가 현황(YTD)

인허가 현황 (호, %)	지역별 합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전국	수도권	지방 광역시	8개도	전국	수도권	지방 광역시	8개도	전국	수도권	지방 광역시	8개도
2023년 상반기	202,808	80,085	44,205	78,518	8,392	6,423	1,373	596	194,416	73,662	42,832	77,922
2024년 상반기	149,860	60,261	30,216	59,383	2,819	1,043	94	1,682	147,041	59,218	30,122	57,701
전년 동기 연누적 대비	-26.1%	-24.8%	-31.6%	-24.4%	-66.4%	-83.8%	-93.2%	182.2%	-24.4%	-19.6%	-29.7%	-26.0%

※ 자료 : 국토교통부

아파트 인허가 추이



※ 자료 : 국토교통부

공급

2_분양

- 7월 전국 분양은 2만 1,977호로 지난 5월에 이어 2024년 들어 두 번째로 많은 분양 물량을 기록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분양이 호조를 보였던 것이 분양 물량 증가에 영향을 주었고 지방도 전월 대비 소폭 증가

◎ (수도권) 7월 분양은 1만 1,894호로 집계돼 전월 7천 호 남짓 분양됐던 데 비해 68.6% 증가

- 전년 동월과 비교하더라도 5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누적치와 비교하면 32.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다만 2024년 들어 현재까지 매달 등락이 커 8월 들어 분양 물량이 어떻게 변화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특히 8월 말에는 하계 휴가가 포함되어 있어 8월 분양 시장 행배에 하반기 분양 시장의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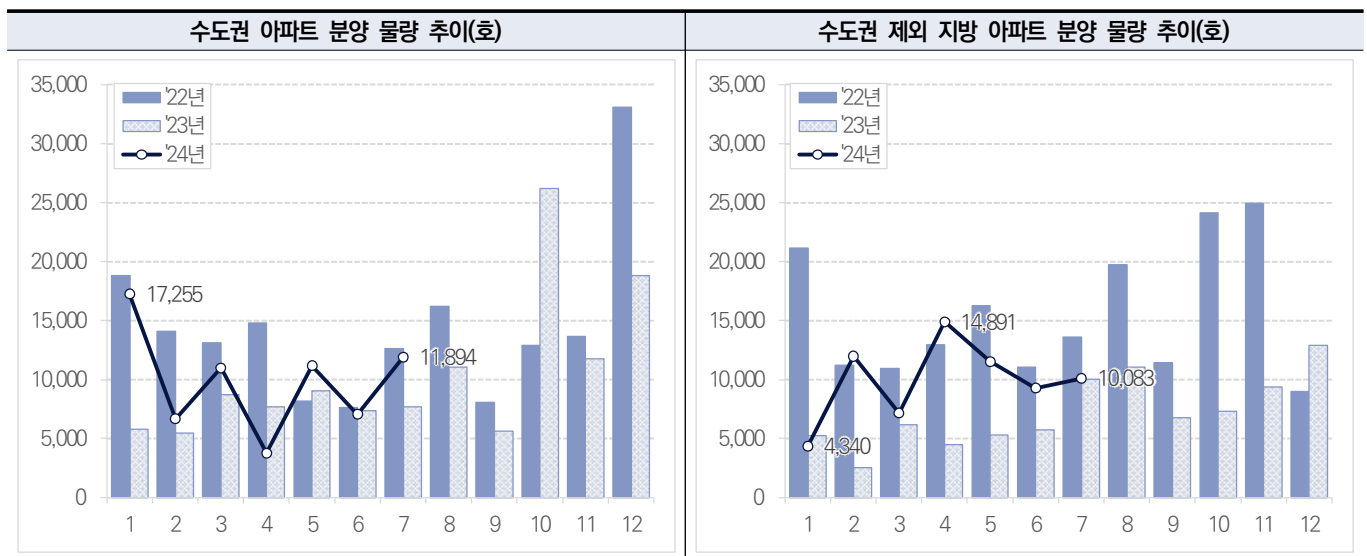
◎ (지방) 7월 들어 분양된 지방 아파트는 지난달에 비해 8.9% 증가한 1만 83호를 기록함.

- 상반기 누적 분양 물량이 많았던 탓에 전년 누적 대비해서는 75.4% 많음.

◎ (분양계획) 8월 분양계획 물량은 2만 호 내지 3만 호 수준으로 응답하였으나 하계 휴가 등 요인을 고려하면 이보다는 적은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아 판매가 수월한 상황 이므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분양가 산정이 필요해 보임.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추이



※ 자료 : 부동산114

공급

3_미분양

- 6월 수도권 미분양 1.5만호... 2017년 5월에 기록한 재고인 1만 5,235호 이후 85개월 만에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 기록
-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은 MoM 12.3% 증가해 연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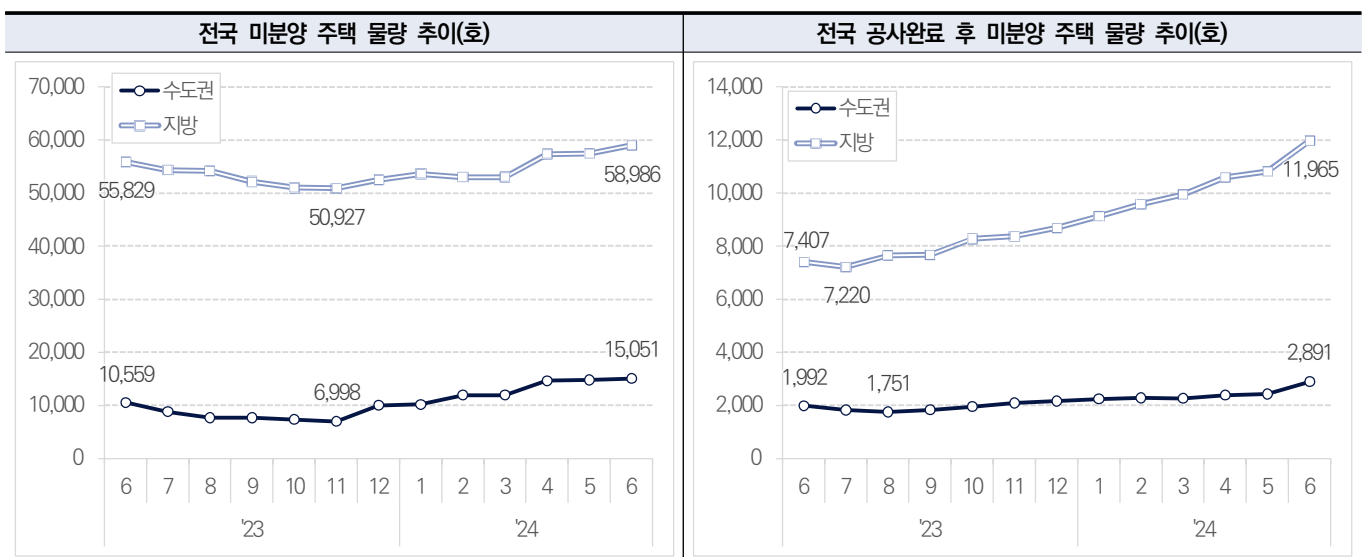
◎ (미분양) 6월 전국 미분양, MoM 3.1% 증가한 7만 4,037호로 전고점인 2023년 초 재고에 근접

- 수도권 미분양은 1만 5,051호로 집계돼 직전 저점이었던 지난 2023년 11월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7년 5월 1만 5,235호 이후 85개월 만에 최다 재고량을 기록
- 즉, 지난 2017년 분양 경기가 호조세로 돌아선 이래 8년여만에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을 보유 중임.
- 지방 미분양은 5만 8,986호로 5월에 비해 2.8% 증가함. 수도권과 동일하게 2023년 11월 재고와 비교해보면 15.8% 증가했지만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수준은 아님

◎ (공사 완료 후 미분양) 6월 전국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467호와 1,159호 증가해 5월에 비해 12.3% 늘어남.

- 전국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은 1만 4,856호로 집계돼 2020년 하반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 시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6월 증가분은 2024년 들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MoM 19.3%, 지방은 MoM 10.7% 증가한 것임.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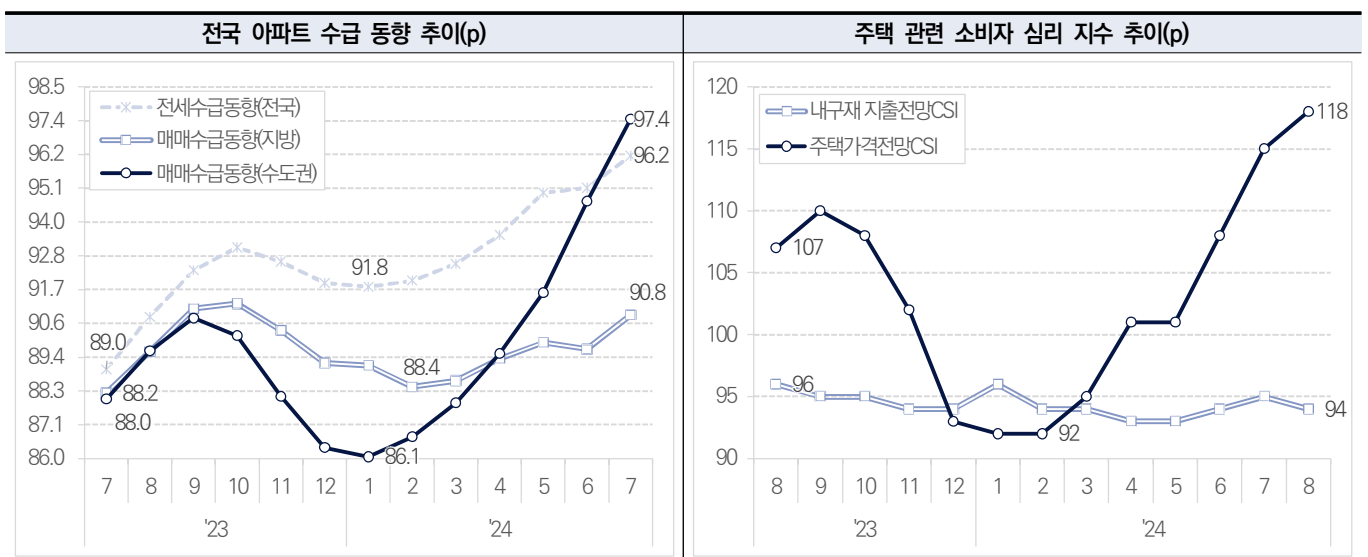
※ 자료 : 국토교통부

수요

- 7월 수도권 매매수급동향 97.4로 조사돼 기준치인 100에 가까운 수준
- 8월 주택가격전망 CSI 지수는 118로 나타나 미래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 **(수급동향)** 지방에 비해 수도권 수요 증가세 커… 수도권의 ‘더 뚝뚝한 한 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듯
 - 수도권의 경우 올해 1월 86.1로 전저점을 기록하였지만 이후 상승폭을 늘리면서 7월 97.4로 7개월 만에 11.3이 증가하였음.
 - 심리 특성상 상승과 하락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 최근의 심리지수 상승세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다만 2012년 이후 장기 평균을 분석한 결과 장기 평균을 초과하는 수준임.
 - 즉 근자에 나타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은 수요와 공급 중 수요측 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단기간에 수요를 꺾을 수 있는 정책이 발표되었기에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 **(소비자심리)** 8월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심리 지수는 118p로 전월 대비 3p 상승
 -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는 4월 100p를 초과한 이후 5월 들어 다소 상승폭이 둔화되는 듯했으나 6~8월 다시 급격히 상승하면서 118p까지 상승한 상태임. 이는 이전 상승 랠리의 말미였던 2021년 10월 125p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내구재 지출 전망 소비자심리지수는 8월 들어 전월 대비 1p 하락한 94p 기록

전국 아파트 수급 동향 및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



※ 주 : 주간 아파트 동향에서 생산되는 수급동향 자료 중 매월 말 지수를 월간 대표 지수로 처리하여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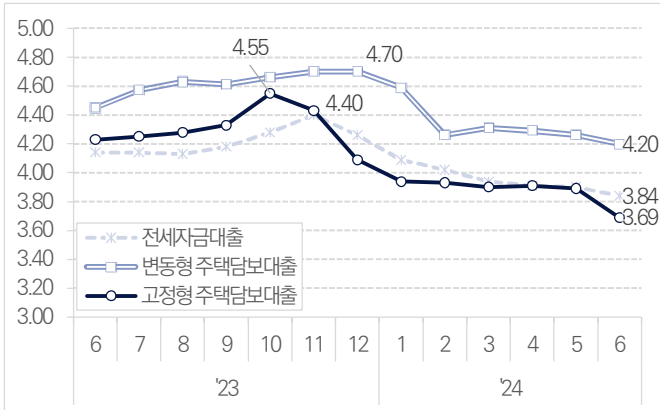
※ 자료 : 한국부동산원, 한국은행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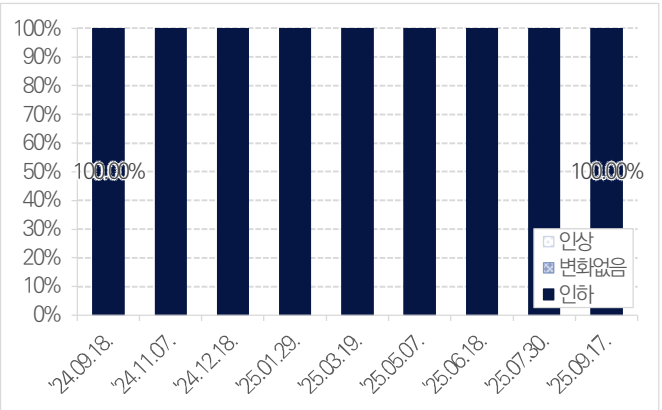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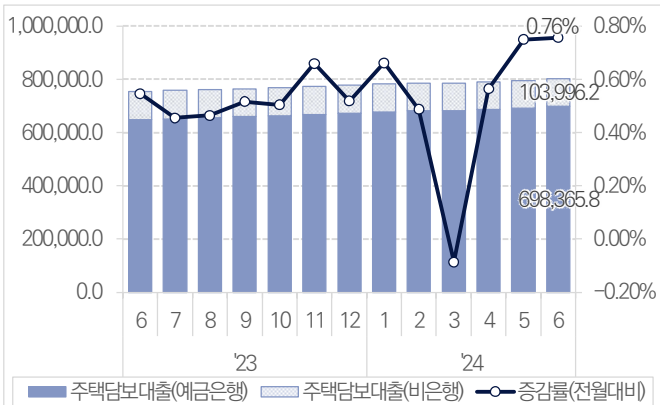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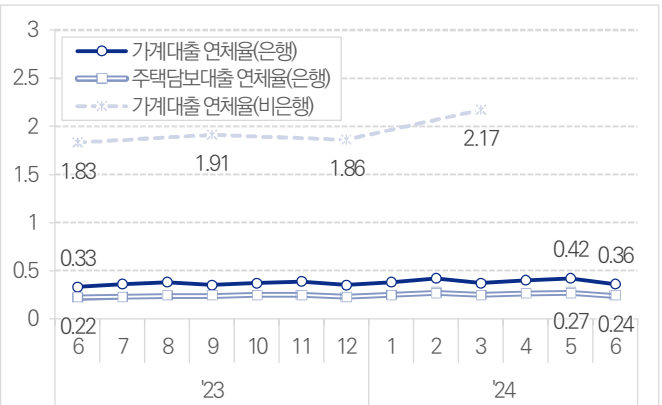
◎ (금리) 6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큰 폭 하락해 3.7%선을 깨면서 5월의 3.89%에 비해 0.2%p 하락해 주택 수요 유입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됨.

-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하된 것은 기준이 되는 금리의 변화로 이해하기보다는 은행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가산금리의 인하 때문임.
- 미국 기준금리의 인하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9월 추석 이후 개최될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금리가 최소 0.25%p 이상 인하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반면 6월 은행권 연체율은 다소 감소함. 금리 인하의 영향이 있리라 판단됨.

주택 시장 관련 금융 변수 추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 추이(연%)^{주1)}

미국 기준금리 변경가능성에 대한 시장 기대(FEDWatch, %)

주택담보대출 대출액 추이와(좌, 십억원) 증감율(우, %)^{주2)}업권별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주3)}

※ 주1 :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HF 월간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중위값(짝수인 경우 중위수 두 값의 평균)임.

※ 주2 : 본 자료에서 비은행이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종합금융회사 등 은행이 아니지만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을 말함. 이하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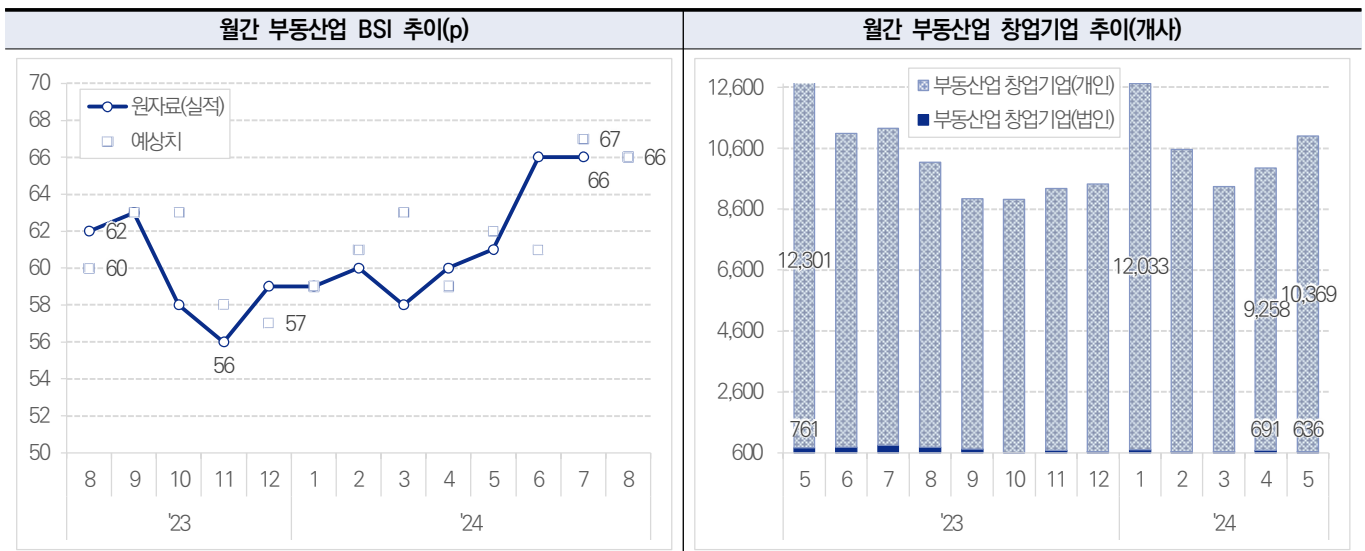
※ 주3 : 비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자료는 분기별로 집계되며, 임의로 분기 말(3·6·9·12월)에 입력하였음.

※ 자료 :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감독원, Chicago Mercantile Exchange

부동산산업²⁾

- ◎ (부동산업 BSI) 7월 부동산업의 업계 현황 기준 BSI는 66p로 조사돼 6월과 동일한 수준이며,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 당초 7월 예상치는 6월보다 1p 개선된 67p로 예상되었으나 현황 설문조사 결과 예상보다는 회복속도가 더뎠고 전월과 유사한 수준의 BSI를 기록하였음.
 - 8월 예상치는 66p로 7월 업황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함.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 응답자를 중심으로 실적이 상승하겠지만 지방의 응답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BSI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8월 인천과 경기도 비제조업³⁾ 업황 BSI는 각각 전월 대비 6p와 1p 증가하였음.
- ◎ (부동산업 창업기업 수) 2024년 상반기 창업한 부동산업 창업기업은 6만 2,720개로 집계돼 전년 동기의 6만 8,710개와 비교하면 8.7% 감소하였음.
 - 월간 창업기업 수가 대폭 줄어든 것은 2023년부터이나, 2024년 들어 재차 감소해 부동산업 자체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수치라 하겠음.
 - 특히 임대업 관련 혜택이 줄어들자 창업기업의 추세가 크게 사그라든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업 경기지수 및 창업기업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중소벤처기업부

2) 본 고에서는 '부동산산업'의 범위를 데이터 출처의 정의에 따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L.부동산업(68)'로 정의함.

3) 한국은행의 지역별 기업경기조사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별 경제조사를 기반으로 발표되며,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뉘어 발표되기에 본 고에서는 인천·경기의 비제조업 업황 BSI를 제시하였음.

부동산시장 통계요약표

항 목		변화율 · 변화량						최신 집계치 ^(주)	최근 5년 변화 추이
		직전 5년		직전 3년		YoY	MoM		
		고점 저점	고점대비 저점대비	고점 저점	고점대비 저점대비	-	-		
거 시 경 제	경기선행지수 (p)	115.9	0.0%	115.9	0.0%	4.3%	0.2%	115.9	
		95.9	20.9%	107.1	8.2%				
	소비자물가지수 (p)	114.1	0.0%	114.1	0.0%	2.6%	0.3%	114.1	
		99.4	14.8%	102.8	11.1%				
가 격 지 수	수도권 아파트 매매 (p)	478.9	-8.8%	478.9	-8.8%	0.4%	0.2%	436.8	
		308.9	41.4%	434.5	0.5%				
	지방 아파트 매매 (p)	333.3	-8.6%	333.3	-8.6%	-1.8%	-0.0%	304.5	
		239.9	26.9%	304.5	0.0%				
거 래 량	수도권 주택 매매 (건)	75,725	-62.1%	42,074	-31.8%	19.7%	4.0%	28,703	
		10,299	178.7%	10,299	178.7%				
	지방 주택 매매 (건)	77,078	-64.9%	47,389	-8.6%	-5.4%	-9.3%	27,057	
		15,462	75.0%	15,462	75.0%				
공 급	전국 아파트 분양 (호)	62,417	-64.8%	62,417	-64.8%	24.0%	34.7%	21,977	
		7,985	175.2%	7,985	175.2%				
	전국 주택 미분양 (호)	75,438	-1.9%	75,438	-1.9%	11.5%	2.6%	74,037	
		13,842	434.9%	13,842	434.9%				
금 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	4.82	-1.11%p	4.82	-1.11%p	-0.55%p	-0.20%p	3.71	
		2.39	1.32%p	2.81	0.90%p				
용	주택담보대출잔액 (십억 원)	802,362.1	0.0%	802,362.1	0.0%	6.4%	0.8%	802,362.1	
		618,163.6	29.8%	709,178.1	13.1%				

※ 주1 : 통계 발표 시점에 따라 당월 혹은 전월 집계치를 활용함.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제외한 모든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분석함.

※ 주2 : 가격지수는 자료의 추가 수집 등 지수 작성 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시 갱신될 수 있음.

※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은행, 부동산114

약어표(가나다 順)

용 어	내 용	비 고
BSI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CSI	소비자심리지수(Consumer Sentiment Index)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MoM	전월 대비 변화율(Month-on-Month)	
YoY	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Year-on-Year)	
YTD	연초 대비 누적 변화율(Year-to-Date)	